

강득구 의원,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 서둘러야

황성균 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이원옥·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인 연구논문에 대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누구나 정부 지원 연구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은 '오픈액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모든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로, 지식과 IP처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학술지 구독비와 해외저널의 독점 구조를 극복해온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및 법제화, 국가 주도의 운영 조직 등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한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국장이 '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학술지에 대한 지불 능력 한계에 다른 도서관, 연구자 집단의 발발과 해외 도서관에서의 보이콧 사례,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논문 생산량으로 세계 8위인 한국이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1) 글로벌 수준 전환 시작, (2) 주요국 수준 전환 달성, (3) 글로벌 프로젝트 기여를 제시하고, 오픈액세스 전환의 성공 요소로 전환 업무를 도맡는 국가적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은 '내국 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 주제를 통해, 지식공유 운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고민 및 비판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출판 지원방식의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가 검토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한양대 중국학과 교수)은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모국어로 작성된 연구성과의 확대를 통해 학문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함을 논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오픈액세스 정책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한림대 의대 교수)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오픈액세스가 필요하다 제시하면서, 정부의 출판비 지원이 절실함과 전체 정부의 R&D 가운데 0.1%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내출판사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오픈액세스의 일정 비율을 늘리며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출판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정부 지원의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법제화

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 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할 필요성과 향후 예산 확보의 필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열린 사회에서 민주화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그 권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학술지 접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와서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이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이 서둘러야 하고 관련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와 해외논문 게재료 문제는 대학의 개별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했고, 강득구TV로도 다시 볼 수 있다.

원종균/기자

제301회 황성균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금일은 감사 2일차로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순자 의원]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행복봉사공동체의 성금 모금 및 성품 후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힘든 소외 계층에게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황성시니어클럽 전담직원 채용시 투명하게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당부한다.

[김은숙 의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1만세운동 기념공원에 대해 지적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모두에게 친근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등원/기자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덕윤/기자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청년 7조례 성과보고회' 열어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장종하 의원)는 6월 17일 경상남도의회1층 로비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7조례 전부 완성을 축하하는 '청년7조례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청년 7조례 중 「경상남도 개인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지역청년에게만 해당하고 도의원과 함께, 지난 해부터 지역청년 문제의 현실과 대안을 찾는 수차례의 정책토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결과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청년 7조례는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실업 예방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이다.

이날 행사에 신상훈 도의원이 청년 7조례에 대한 그동안 추진 경과 보고를 하고, 청년 7조례 추진과 지난해 연말 경남도의회가 전국 지방

의회 우수사례 대상 수상에 기여하는 등 도의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7개 청년단체에 의장표창장과 꽃다발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서, 지역 7개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7조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경상남도의회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청년 7조례 완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희 청년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용 의장은 "청년 7조례 완성은 청년정책연구회 의원과 지역청년인 뜻을 모아서 이룬 값진 성과다. 표창장을 수상한 청년단체와 청년 7조례 완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청년특별도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친화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정책연구회 장종하 회장은 "청년 7조례가 완성되기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밝혔다.

최광용/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 국가철도망 선택과 집중필요해

전라북도가 주요현안 사업 및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대응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16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결산심사 정책질의에서

"국가예산확보와 국책사업확보에 있어 전라북도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가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부족함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논리 개발에도 소홀해 큰 문제"라고 지적 했다.

박용근 의원은 또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2조 3,894억) 철도, 대구-광주(4조 850억) 철도의 경우 두가지 모두 반영되기는 쉽지 않고 확률도 떨어질 것이라며 두 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두 노선 중 전라북도에도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김승일/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등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의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광명교육지원청 충현고, 온라인 학생회장 선거 실시

6팀의 학생 회장 후보들, 격주 등교로 대면과 비대면 선거 운동 병행

충현고등학교는 6월 18일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중앙선거위가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하여 문자나 메일로 발송되는 개인 URL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시스템이다. 투표나 개표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충현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는 회장, 부회장 후보가 각각 한팀을 이루어 출마했고, 총 6팀이 입후보했다.

후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층 복도에 게시하고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각자 준비한 홍보용 피켓 등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선을 다해 공약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약 발표 또한 후보들이 직접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취했다. 후보들은 각자 개성을 발휘하여 자

신들의 공약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유된 링크를 통해 각 후보의 홍보 영상을 시청했다.

학생들은 5교시에 후보들의 공약 홍보 영상과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가 제작한 투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어서 6교시에 각자 전송 받은 문자에 첨부된 개인 URL을 이용하여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며 투표에 임하였다. 격주 등교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1학년 학생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충현고 이영찬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비대면 투표를 진행하게 되어 생소한 방식에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고 개표 결과 또한 정확하여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격주 등교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한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순희/기자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참여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8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남북 화해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된다.

토론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사무총장인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진행을 맡는다.

토론 주제는 ‘남북 합의’와 ‘남북협력’이며, 발제자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각각 무대에 오른다. 두 교수는 남북합의 이행 재개를 위해 현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

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패널 간 토론이 본격화된다. 패널로는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과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한다.

이밖에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복측에 ‘남북 미술 전시회 개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모티브로 하는 남북 대표 작품을 오는 29일부터 수월시를 시작으로 안산시 등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하고 동시에 북측 도시에서도 전시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남북합의 이행 국면 조성이 중요하며, 안산시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한반도 평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안산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 등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회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00 ~ 12:00
대한상공회의소 B2 국제회의장

- 진행 : 김병내(광주 남구청장), 정원오(서울 성동구청장)
- 대표인사 : 염태영(수원시장), 황명선(논산시장)
- 축사 : 이인영(통일부 장관)
- 기조연설 : 임종석(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 발표 :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계리(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토론 : 김홍장(당진시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 참석자 및 기자 Q&A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의장 내에는 100명 이내로 인원이 가능합니다. 당일 YouTube 생중계도 진행합니다.

관람 유튜브 채널 | 참여 유튜브 채널

주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11개소 조성

동두천시는 올해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11개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유주차장, 공유텃밭, 공유쉼터를 조성했다.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붕괴위험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주택을 자부담 없이 철거하고, 그동안 쓰레기, 악취 등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인근 주민들에게 3년간 공공공지로 개방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는 2019년부터 총 58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공유텃밭,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6

개의 공공공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빈집 주변 주민은 “빈집이 대로변에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쓰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아서 너무 불쾌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해주고, 텃밭까지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크게 만족했다.

최용덕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향상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동두천시민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남양주시, 동양하루살이 방제 위해 붕어 63만 마리 방류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외부용 월문천, 덕소천, 궁촌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붕어 63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동양하루살이 방제대책위원회(위원장 조양래), 오수국 외부용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관내 동양하루살이 주 서식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고농도 살충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동양하루살이를 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함께 시도해 왔다.

이번 붕어 방류는 지난해 미꾸리 1만 마리를 방류한 것에 이어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동양

하루살이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토산 어종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매일 한강변을 위주로 친환경(유기농) 방역 약품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삼육대학교와 동양하루살이 예방 및 방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동양하루살이 퇴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의왕시,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어르신 건강 놀이터' 마련

의왕시가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활동적인 노년의 생활 패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오전로가족공원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건강 놀이터'를 마련했다.

'어르신 건강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경로당 등의 시설로 한정되었던 점을 변화시켜보고자 기획되었으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꾸준히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신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를 이끌어내어 우울증 및 치매예방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시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어르신 건강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향상과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 아람체·사랑채노인복지관과 어르신일자

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협업을 통해 양성된 액티브 매니저가 놀이터 프로그램에 함께 활동하여 어르신 일자리까지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가 고령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어르신 건강놀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오전로가족공원 내 어르신 건강놀이터를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아람체노인복지관 앞 문화공원과 사랑채노인복지관 앞 복지공원에도 어르신 건강놀이터를 조성하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앞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원종균/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곽상욱 오산시장 '펫스타이노베이션' 행사 참가

곽상욱 오산시장이 17일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펫스타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에서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기술도입을 제안한 4개 스타트업 기업에 시장상을 수여했다.

펫스타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는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이 개발한 제품·기술·디자인·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로,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 스타트업 시상식을 위해 참석했다. 행사는 SBS(TV동물농장)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제안공모전에는 총 94개 펫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를 신청했다. 그중 8개 기업이 사전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정돼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SBS TV동물농

장 등에 적용 가능한 참신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실제 세계 메타버스 기반 혼합현실 반려동물 체험(터블미)가 최우수상을, 인공지능(AI) 기반 사진촬영 서비스(두다지)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애견 성격심리검사 키트(카미소프트), 반려동물 지식정보 콘텐츠 서비스(비마이펫)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이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민인식 SBS 시사교양 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기관과 기업투자자들 및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들이 참여했으며, 평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대표 연예인인 토니안과 조이가 진행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매년 새로운 직



업과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산시가 반려동물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심리치유부터 사업지원금까지 폐업 소상공인도 체계적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2021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올해 폐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의 경우 심리 311건, 금융 200건을 포함하여 컨설팅 총 1,361건이 이루어졌으며, 재기장려금 250곳, 기술훈련비 453곳에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우수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후 압박감이 심한 상태였으나, 심리 치유 상담을 통해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안정을 찾았다는 후기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치유,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재기장려금(200개소, 150만원)과 점포철거비(200개소, 최대 150만원)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재기장려금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생계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혜대상자 범위를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20년도 12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폐업 소상공인 분들이 빠른 가계 경제 안정을 통한 취·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원 이흥우 원장은 "도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이미 폐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과 지원금 지급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양평군 청소년을 위한 공간,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관장 마세근)이 옛 용문면사무소 일원에 조성되어 7월 초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연면적 1460㎡)로 조성되어 교육실, 휴게실, 복카페, 동아리실, 댄스실, 영상제작소, 노래방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시설 내 청년일터(301㎡)와 건강관리센터(427㎡)가 자리하고 있어 양평 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다양한 특기 및 취미 개발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인성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활동 등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관을 앞둔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은 별칭과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이밍(별칭)&BI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7월12일(월)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7월22일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구글 설문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마세근 관장은 이 공간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을 청

소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동부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꿈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네이밍 & BI 공모

공모기간: 2021.06.18(화) ~ 2021.07.12(월)

결과발표: 2021.07.15(목)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예정

참여대상: 양평군 관내 청소년 개인 또는 팀(2인 이상)

참여방법: BI: 온라인 설문지 (QR)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네이밍: 온라인 설문지 (QR)
나만 내용은 우측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신청(문의):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문의: 031-851-1111)

공모분야: 네이밍(별칭) 제시(노래방, BI(Brand Identity)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별칭과 브랜드 이미지 사용)

시상내용: 각 분야당 으뜸상 1명(팀), 비금상 1명(팀), 장의상 1명(팀)
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의집 QR코드를 교인노래방 교인 증정

우리 문화의집에 자랑하자!
이제부터 문화의집을 자랑하자!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안양시,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6명 선정

안양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능동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상·하반기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혁신가능성 등 5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두 단계 심사를 통해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지난 17일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최우수 수상 영광은 기업경제와 김용태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지자체 최초로 인터넷 플랫폼과 연계하여 전통 시장 온라인 판매 추진이 돋보였다. 상인의 매출증대와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온라인 진출 지원 공모에도 선정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상 수상 주인공은 노인복지과 문성민 주무관, 도로과 최승갑 팀장 2명이다.

문성민 주무관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기한도래로 실효 위기에 처한 청계묘지공원 900여기 강제 개장 위기를 합법적인 관리 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정비·관리 기반을 조성

해 극복할 수 있었다.

최승갑 팀장은 도로확장공사 추진 보상협약에 따른 장기민원을 창의적인 토지 교환방식으로 쌍방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보상완료와 갈등을 해결했다.

장려상은 건축과 장문수 주무관, 동안보건과 김주희 주무관, 동안구 교통녹지와 박해민 주무관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장문수 주무관은 벽면이용간판 규제를 해소하며 국고보조금 확보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인정받았다.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일하는 김주희 주무관은 기존의 업무에 더해 역할조사관까지 수행하며 신속한 확진자 파악과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수상자중 가장 막내로 공직 입문 1년 6개월 된 박해민 주무관은 한번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으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안양시는 2020 행정안전부 선정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짐,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적극행정의 동기를 부여해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시민행복, 스마트한 안양을 만들 수 있다"며, 적극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

2021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컨설팅

2021.06~2021.11

상담 신청하기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란?

경기도 내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실행비용(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하동군, '올해도, 내년에도 하동에 가야하는 이유' 대상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조직위가 주최한 '제1회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 UCC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밝혔다.

UCC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의 다양한 응모로 많은 영상이 출품됐다.

이번 공모전은 하동 차의 가치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차 산업 확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각각 6점 등 총 1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우리의 정원'이 출품한 '올해도, 내년에도 하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하동 차를 일상 브이로그 형식 이면서도 경쾌한 편집과 자막, 조화로운 오디오 연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차덕후'의 '한류의 차향 K-tea 하동세계차엑스포'와 김영수 씨의 '천년을 넘어 세계로! 하동차 엑스포!'가 뽑혔다.

장려상은 'ONE-TAKE'의 '하동을 선물하세요'와 정재훈 씨의 '세계의 차 하동' 등 2개 작품, 각각은 '현지0시'의 '19살의 나에게'를 비롯한 6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등 총 3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 '하동다방-하동세계차엑스포'에 순차적으로 게시된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전국의 많은 분이 정성스레 제작한 UCC 영상을 보며 하동세계차엑스포를 향한 큰 관심을 알 수 있었고, 이번 공모전은 응모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본인 SNS에 게시해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남해군보건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간담회 개최

남해군보건소가 지난 17일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안심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5개소 교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관리 및 학습능력을 키우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5개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과 안심학교 환아 및 환경관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은 사회·경제적 성장 및 주거환경 변화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에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군보건소는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교육 및 홍보, 질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환아 관리 카드 비치, 체험활동 운영 등 다양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 주무관은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토피에 대해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간접교육이 이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강영훈/기자

서핑의 낙원 부산,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 개최

대한민국 서핑의 성지 송정해수욕장에 전국 400여명의 서퍼들이 모인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서핑협회가 주관하는「제12회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를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는 2019년 대회부터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송정해수욕장은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심이 완만하고 연중 수온이 따뜻하며 파도와 바람 세기가 서핑에 적합하여 사계절 내내 전국 서핑 마니아들이 찾는 천혜의 서핑의 명소이다.

2021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어 더욱 더 각광받고 있는 서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레저스포츠로 건강한 여가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 경기는 일반부(롱보드, 숏보드, SUP레이스), 입문부, 유소년부, 부산 KOREA OPEN 6개 종목 펼쳐진다. 일반부와 입문부는 남·여로 나눠서 진행하며, 유소년부는 남·여 통합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각 종목별 1위~3위는 시상상을 통해 트로피와 부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비치코밍(해변정소)을 통하여 환경정화 활동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 KOREA OPEN 종목을 신설하여 국제서핑협회(ISA)규칙에 따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국가대표 선발 접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처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부산 KOREA OPEN 종목이 신설되어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서핑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이론 '음악·미술감상' 참가자 모집

7월 6일~7월 29일 ... 예술과 음악, 미술 탐험의 시간 마련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예술이론 '음악·미술감상'의 참가자를 오는 6월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감상, 음악감상, 미술감상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과 음악, 미술의 역사를 작품 감상과 함께 양방향 소통하며 탐험해보는 과정으로 기획했다.

먼저 예술감상은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다'를 주제로 그림에 등장하는 악기의 의미, 음악가의 초상화 등 그림에서 음악으로, 음악에서 그림으로 나타난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해해보는 과정이다.

지도강사는 음악평론가인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이장직 총괄연구원으로 객석예술평론상, 서울예술상 등 수상했고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월간객석 객원전문기사를 역임했다.

음악감상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들의 역할, 오케스트라 음악의 탄생, 교향곡의 시작과 발전까지 내용

준 클래식해설가와 함께 한다.

나용준 클래식해설가는 금관악상부 '브라스 마켓' 리더로 네이버(NAVER) 오디오클럽 '클래식 사용법'을 연재 중이고, 에스비에스(SBS) 김영철의 파워에프엠(FM) '무식탈출-클래식' 코너에 출연 중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감상은 기라영 전시예술감독의 강의를 통해 '동양회화의 모든 것'을 주제로 조선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작가들, 공예품, 회화 등 여러 작품들을 알아본다.

기라영 전시예술감독은 아트그라운드 에이치큐(HQ) 대표로 울산미래비전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 북구 예술장작소 총괄 운영 및 경상일보 '기라영의 미술 산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신청은 회관 누리집을 통해 6월 21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과목별 2만 원이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예술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김해시, 율하지구 도심하천 내 소하천정비 실시

김해시는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유 율하지구 도심하천인 구관동천, 신리천, 뜰천, 장유천 일원에 대해 하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4개 소하천은 율하천 지류 하천으로 율하천과 연결하여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5.1km의 하천이며, 취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등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하천이다.

이번 하천정비는 산책로와 하천 내 쓰레기 수거, 하상준설 및 나무제

거 등이 포함되며, 율하2지구 뜰천과 장유천은 이미 정비 완료하였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우수기전 정비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박창근 하천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수기전 재해예방이 우선이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해시민께서도 하천을 아끼는 마음으로 쓰레기 투기 및 하천오염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남궁영/기자

진주시, '맛있는 스테이크 청춘 파티' 개최

진주시는 지난 17일 화상채팅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소방서, 진주시 등 관내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2030세대 직원 26여 명이 참여한 「맛있는 스테이크 청춘 파티」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이전 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의 2030세대 젊은 직원들이 함께 모여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시책을 이끌어 낼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스테이크 밀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스테이크 파티, 미션 게임, 혁신도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랜선 단체 건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추진됨에 따라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장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된 진주혁신도시의 현재 상황과 정주 여건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주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미혼인 직원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일상생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전남도,도민 눈높이로 도정 주요사업 살핀다

2021년 상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 첫 개최... 7~8월 현장 평가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1년 상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를 열어 민선7기 하반기 도민평가단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도민의 눈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하반기 도민평가단을 100명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면회의를 이어온 후 이날 7개월 만에 첫 대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보고 ▲실천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현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등이 진행됐다.

민선7기 공약은 7개 분야, 26개 과제, 135건이다. 현재까지 123건을 완료해 이행률 91%라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민평가단은 공약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대내의 여건 변화로 방향 재설정 불가피한 12건의 공약을 변경기로 의결했다.

특히 공약 등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8개 현장평가 대상 사업을 직접 선정했다. 오는 7~8월 일자리경제, 농축산 등 7개 분야별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도민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실적이 우수한 담당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책 제안 사항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한다.

회의에 앞서 도민평가단장으로 선출된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는 "어

려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가는 중대한 시기에 평가단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평가단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은 200만 도민을 대표해 주요 도정 사업을 평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도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민평가단은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0명과 시군별 인구수 비례로 추천한 80명 등 총 100명의 도민이 참여한다. 기획행정환경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사항 점검, 도정 주요 사업 평가 등 활동을 한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준비 '박차'

민관공동추진위원회 개최... 프로그램 공유, 현장 점검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GWANGJU'를 앞두고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와 중앙부처 관계자, 지자체, 대행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이정일 광주지역 추진위원장,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 공동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사회적경제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대규모

행사로, 2018년 대구, 2019년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엮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로 진행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지역 중심-정부 뒷받침 기조하에 민관이 협업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인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사회적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학습격차 해소·미래교육 앞당기겠다" 취임 3주년 맞아 도민 4천명과 '랜선 경청올레' 가져

'지속가능 전남 미래교육 발전방안' 놓고 진솔한 대화

"교육감님! 환경문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매성중학교 1학년 이○○ 학생)

"저는 평소 일회용품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고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있어요."(장석웅 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17일 오후 '랜(LAN)선' 경청올레를 통해 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전남의 산적한 교육현안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경청올레는 15개월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과 대면 방식의 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회의와 유튜브를 통해 랜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행사는 장석웅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혁신전남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미래 전남교육의 과제'에 대한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 특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청올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참가자를 16명으로 최소화한 대신,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한 150여 명의 교직원·학부모·도

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유튜브 '전남교육TV' 채널을 통해 4천여 명의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접속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가 지속되어 열렸다.

특히, 영광 불갑초등학교 4학년 1반, 나주 매성중학교 1학년 7반, 순천북성고 2학년 8반 학생과 교사들은 교실에서 교과수업 시간과 연계해 경청올레에 참여하며 활동 중심 수업을 활발히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청올레는 1부 '희망을 쏘아올린 전남교육 3년'과 2부 '모두가 빛나는 전남 미래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걸여온 전남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장교육감과 전남교육청의 코로나19 극복 과정, 원격 수업 지원, 학습격차 문제, 학교민주주의 성과 등을 둘러싸고 열띤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전남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학력 신장과 진로 진학지도 강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농산어촌 유학 확대, 고교학점제, 창의융합교육, 기후위기 생태

환경교육,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장 교육감은 "위기의 순간에도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가 등교를 했고, 청정 전남의 강점을 살려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남교육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난 3년의 성과를 회고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남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영상을 통해 참가한 150여 명의 학부모와 도민들, 그리고 현장 참가자들은 전남교육에 대한 바람의 문구를 각자 준비한 카드에 펼쳐 보냈다.

또한 유튜브로 접속한 4천여 명의 참가자들도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기며 전남교육의 발전을 응원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개진된 참가자들의 의견을 각 실·과별로 검토해 향후 전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안/기자

"육묘부터 수확까지" 장성군, 돋보이는 쌀 생산 지원

장성군이 단보당 쌀 500kg 생산을 목표로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의 쌀 생산량은 전남도 내 상위권에 속한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4위에 그쳤지만, 2018~2019년 연속으로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장성군이 운영 중인 '단계별 통합지원 시스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단계별 통합지원 시스템은 육묘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쌀 재배농가 맞춤형 지원체계다.

먼저 육묘기에는 육묘용 상토, 상자처리제, 비료 등 고품질 농자재를 지원한다.

농자재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단가를 10~20% 가량 낮췄다.

생육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단지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적기에 농약 살포가 어려운 고령농 등에게 호응이 높다.

장성군 관계자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으며,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해 단보당 쌀 500kg 생산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장흥군, 장흥의 미래는 청년이 만든다!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 6월중 정기회의 개최

장흥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협의체인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가 6월 정기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저녁 이윤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 대표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 월드항공 드론아카데미에서 개최됐다. 정기회의는 매월 위원들의 사업장에서 진행하게 된다.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는 일자리, 문화, 복지, 농어업의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청년정책 발굴에 직

접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청년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통창구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칠 때, 청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청년발전협의체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감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인 장흥군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선정

부평구는 16일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부평구 중소기업인상은 부평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실조사 등을 실시해 엄선하는 상이다. 구는 해마다 반기별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평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공헌한 지역 내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부평구 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기업인의 자긍심을 북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구는 경영부문과 기술부문에서 각 2명씩 총 4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7월 1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7기 부평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된다. 경영부문 수상자에는 김정섭 (㈜중앙소방이엔지 대표이사, 이훈우 한스타기술(주) 대표이사) 각각 이름을 올렸고 기술부문에는 이명규 (㈜사이언스타운 대표, 신계철 에스에스오트론(주) 대표)이 선정됐다. 경영부문 수상자인 (주)중앙소방이엔지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8년차 소방종합현업업체다. 소방시설 도입 한도액이 전국 10% 이내에 포

합되는 소방전문 우수기업이다. 부설연구소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지난해 화재감지기 교체용 드론 특허를 받는 등 소방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기부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양로원 등 취약지구 소방시설 무료 점검 및 무상수리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김정섭 (주)중앙소방이엔지 대표는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 경영부문에서 수상한 한스타기술(주)은 최첨단 컨베이어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공항의 BHS설비, 물류센터 이송설비, 공장 물류이송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시설과 비인가 시설에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훈우 한스타기술(주) 대표는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감사하다"며 "직원들의 업무지식, 친화력, 기술력 등을 높여 물류자동화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부문 수상자인 (주)사이언스타운은 설립 20여 년이 지난 초정밀 측정·광학기기, 제어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광학실험실습 기자재 및 관련 응용장치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초정밀광학부품 제작, 각종 반도체, 정밀 검사장비 설계 및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초정밀 스테이지,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작·제어 기술 등 고도의 기술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명규 (주)사이언스타운 대표는 "광학분야에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업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수상자인 에스에스오트론(주)은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자동화 라인 구축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 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관리, 설계, 장비개발, 구매, 가공 등을 일체화·표준화·수치화 해 원가를 절감하고 업무효율과 수익률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비대면 영업활



등을 펼쳐 전년 대비 200%의 매출 상승을 이뤘다. 또 부설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로 다수의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했다. 신계철 대표는 "기업경영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기업은 부평의 힘이고 자랑"이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 되도록 부평구도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소방서, 소원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태안소방서는 16일 오후 소근민권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원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이화영 전임 여성의용소방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취임한 합남육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취임식은 스내빈소개 △공



이현중 철원군수,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자연생태계 보호활동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군정활동 우수 공헌 이현중 철원군수가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군정활동 우수 특별상을 수상했다. 철원군은 이현중 군수가 6월18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사)환경보전대응본부·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지구 온난화방지기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현중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구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기반을 조성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철원군의 생태환경 및 자연자원 등 생태계 보전지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완료하고,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통한 철새네트워크의 강화 등 환경친화적 정책 추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온난화 등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 환경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한 시대가 됐다"며 "우리군은 아름다운 우리 삶을 위해 깨끗한 자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침산1동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 개최



대구 북구청의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집수리 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6월 17일 침산1동 문화회관에서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집수리 학교'의 수료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직접 고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구 사용법 △생활전기 △도배 및 장판 △타일시공 △단열 및 방수 △창호교체 △생활배수관 교체 과정을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56시간)의 기초과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70시간)의 심화과정을 마쳤다. 또한 '마을 집수리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해 총 32명의 주민들이 도배, 창호교체 등에 직접 참여하여 실습을 통한 빈집 환경도 개선하였으며, 참여 주민 중 최종 13명이 전 과정을 수료하고 지난 5월에 집수리 봉사 시범활동으로 노후주택 벽지와 주방타일 등 2가구를 정비하여 이번에 '집수리 봉사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발대식에 참여한 집수리 봉사단

대구도시철도,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2009년부터 매년 헌혈봉사활동 진행, 누적 헌혈자 657명·헌혈증 329매 기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3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헌혈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9년부터 혈액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사가 뜻을 모아 '노·사합동 생명나눔 헌혈봉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홍승할 사장과 양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엔 해마다 두

충북도 보건복지국,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

코로나19로 인해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에 힘 보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6월 17일 진천군 덕산읍 산수리 소재 딸기 재배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딸기 모주런너 작업과 상도 보충, 관수 작업 등에 참여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손부족이 더욱 심각한 농촌에 작은 힘을 보탰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때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충청북도의 코로나19 대응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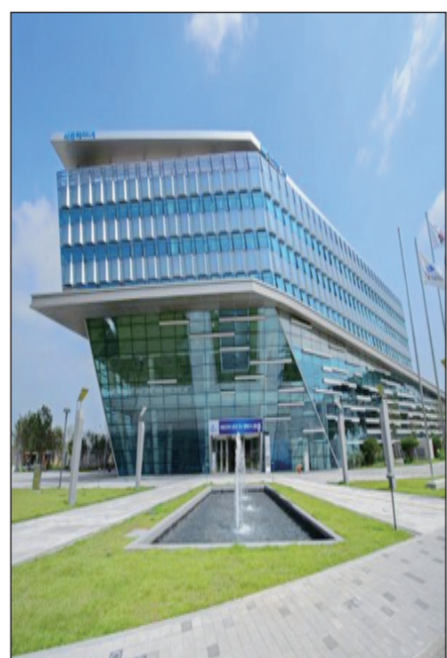


세종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탄생

농업회사법인 영신(주), 성금 5,000만원 기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명 '사회백신나눔'에 지역업체가 발을 뒀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영신(주)(대표 임현완)은 18일 시청사에서 이춘희 시장,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양계업체인 영신(주)는 이번 기부로 '우리 세종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임현완 대표는 지난 2017년에도 1억 원을 기부해 세종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터티 11호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임현완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 세종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돌봄, 건강, 교육 등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이

후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마련을 위해 '우리세종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시, '유령어업 예방! 수산자원 회복!' 생분해성 어구 2만 폭 보급

7억 원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생분해성 어구 2만 폭 보급 추진

보령시는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피해 감소를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일론 등 합성섬유 어구는 바다에 유실될 경우 자연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소요되며, 썩지 않고 바다에 떠도는 어구에 물고기가 걸리고 이를 먹기 위해 더 큰 물고기가 연속적으로 걸려 죽게 되는 이른바 '유령어업'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 등 수산물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4만 폭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7억 원을 투입해 2만 폭을 보급한다. 생분해성 어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개발한 어구로 바닷속에서 2년 이상 머물 경우 수중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환경친화적인 어구이다. 하지만 구매 비용이 나일론 어구의 약 2배에 달해 어업 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으나, 보급 사업을 통해 나일론 어구 단가와 차이를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 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해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



시는 올해 보급할 생분해성 어구를 제작 중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높은 가격으로 구매 부담이 있던 생분해성 어구

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과 해양 환경 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스마트 국방산업' 새 이정표 세운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비전·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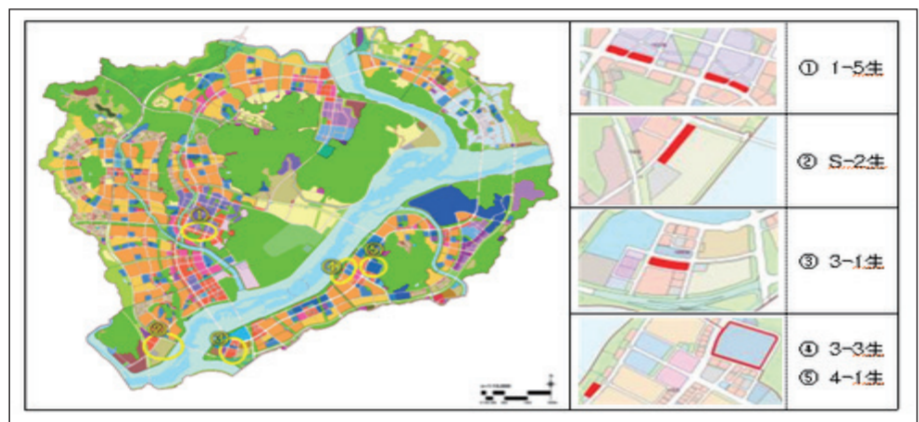
충남도가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국방산업 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이번 용역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논산 국방 국가산단을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표, 4대 전략, 20개 과제를 제안했다. 비전은 '스마트 국방산업의 새로운 중심, 충남'이며, 목표는 '전국 최초 성공적인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충남 균형발전 도모', '산·학·연·관·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일자리 확대'이다. 구체적인 4대 전략은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개 과제로는 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

구축,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전문기관 유치, 국방 엔지니어링 유치, 케이-밀리터리 팜 테마파크 조성, 군 복합 문화 휴양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다. 또 국방전력지원체계협의회 신설, 범부처 및 관련 기관과 수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방산학융합원 신설, 충남형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제시했다. 예상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국비 2666억 원, 지방비 1706억 원, 민자 1973억 원 등 5년간 약 6346억 원이다. 도는 최종보고회 결과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타 통과 이후 도는 국방국가산단의 개발 계획 승인 및 조속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도가 전력지원체계 스마트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적극 수행해 국방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논산·계룡시 일대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유희부지 형형색색 코스모스 물든다

도시 경관 향상, 시민과 함께하는 씨앗뿌리기 행사 개최

행복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던 유희부지가 형형색색의 야생화로 물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병만)는 생활권별 내대지에 야생화 파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LH는 그동안 생활권별 주요 미매각 부지 활용을 위해 도시 환경관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유희부지에 야생화를 식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과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총 부지 면적 3만 9,580㎡ 규모 5곳을 선정했으며, 선정 부지에는 이달 코스모스 파종을 모두 완료했다. 대상지는 1-5생활권(14,859㎡), S-2생활권(6,500㎡), 3-1생활권(9,020㎡), 3-3생활권(4,715㎡), 4-1생활권(7,686㎡)이다. 또한, 공사용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정결하게 관리하고 그 외 잡초,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된 부지는 환경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가람동 유희부지(S-2생활권)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한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씨앗뿌리기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가을꽃 코스모스는 이르면 8월 이후부터 가을까지 각각각색의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LH세종본부 협조와 지원으로 행복도시 내대지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LH와 협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만 LH세종특별본부장은 "행복도시 조성사업이 3단계에 이르렀고, 도시가 성숙해 질수록 도시관리 문제가 중요한 화두"라며, "도시의 미매각토지 등에 대한 폐기물 투기 등을 억제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청주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청주시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교육은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을 나누어 진행되며, 정원에 관심 있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관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충북생명의숲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수강료는 1인 당 7만 원이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은 정원을 가꾸고 향유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기본적 소양과 역량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주 80시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예산군, 관광지 홍보 위한 군 버스투어 사업 본격 운영

예산군은 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해 21일부터 버스투어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버스투어는 지역 관광지를 연계 운행해 단체 관광객이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주요 관광지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현재 군에서는 자체 군 관내버스투어(군 관광지 중심 관광코스 구성)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 광역버스투어(주변 시·군 연계 관광코스 구성)를 병행 운영 중이다. 올해 버스투어는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및 예산황새공원과 신규 관광지인 불수산수목원 내 곤충생태관, 하늘데크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체 군 관내버스투어 관광지는 △내포보부상촌 △수덕사 △불수산수목원(곤충생태관, 하늘데크길 포함) △예산황새공원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백종원국밥거리 등이다. 또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 광역버스투어는 △아산외암마을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불수산수목원(곤충생태관, 하늘데크길 포함) △예산황새공원 △백종원국밥거리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관광코스가 변경될 수 있다. 관내버스투어 예약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예산군 관광안내소(041-



339-8930)로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며, 게시 날짜별 예약 관광객이 12인 이상(25인승 버스 기준)일 때 운영된다. 또한, 코레일과 연계 진행해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광역버스투어 예약 및 문의는 풍경있는여행(02-2699-9720)을 통해 할 수 있고 G마켓, 옥션에서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게시 날짜별 예약 관광객이 20인 이상(45인승 버스 기준)일 때 운영된다. 이외에도 4인 이하 소규모 관광

객은 군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군 관광안내소(041-339-8930)에서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군은 현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기준 인원의 50%를 수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버스투어를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편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충북도, 자연재난 대비 방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 최악의 수해 피해를 교훈으로... 사전 대비에 최선

충정북도는 17일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가 초청 화상 방재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방재 교육은 이상기후로 방재 정책이 점차 고도화·전문화함에 따라 방재 담당자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재난안전의식을 기르기 위해 마련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비롯해 도·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고, ▲자연재난 정책과 대응 방안 ▲자연재

난 피해 유형별 복구대책 ▲자연재난 피해 경감 발전 방향 등을 교육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고, 참여자들은 교육내용을 향후 개인별·부서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21 시즌기획공연 '명불허전 예인을 만나다' 판소리·합창 공연 개최

최초로 판소리합창 장르를 개척한 전주판소리합창단의 새로운 판소리 무대!

시립연정국악원은 2021 시즌기획공연으로 '명불허전 예인을 만나다' 판소리·합창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판소리와 합창이라는 양식의 결합에 뮤지컬, 성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가미하여,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판소리합창단 초청공연으로 오는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무대에서 펼쳐진다.

말게만 느껴지는 두 영역, 판소리와 합창의 만남이 이채롭다. 독창으로만 진행되는 판소리를 성부를 나눈 합창과 제창 등 새로운 형식은 물론 타 장르와의 음악적 경계를 넘나드는 내용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전주판소리합창단은 2006년 창단하여 판소리합창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척했으며, 판소리를 전공한 여성 소리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창단 이래 꾸준한 작품 활동과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발, 창작연구를 통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여 성장했다.

최근,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와의 협업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민족요'라는 새로운 양식을 선보이며, 참신하고 실험적인 무대로 전

통 판소리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판소리의 새로운 실험을 위한 독창과 제창, 합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대표적인 판소리 단가인 '사철가'를 동요와 대중음악 느낌으로 표현한 '신 사철가',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중류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심청가: 인당수'가 연주된다.

그리고 전주판소리합창단이 새롭게 판소리합창으로 구성된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와 이육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광야'와 함께 조선 말기 신재효가 지은 판소리 단가인 '광대가'를 전주판소리합창단의 입체적인 소리로 소리꾼들의 범례를 노래한다.

이영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판소리와 합창,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다른 두 장르가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구성하는 감동을 선보이는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악원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한식/기자



사천시,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은 연극 '너의 곁에 있을게'

문체부 주관, 전국 도서관 및 지자체·공공기관 보급 예정

경남도립극단의 2021년 순회공연, 연극 <너의 곁에 있을게>가 오는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연극 <너의 곁에 있을게>는 일흔넷 유쾌 발랄 할머니와 맑고 순수한 열일곱 소녀의 세대 초월 찰떡 우정 이야기로 경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놉시스 공모전 당선작 <다시 찾은 정춘에게(김미지, 김혜영)>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50여 년 전 베트남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긴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집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루 하루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가 우정을 나누던 앞집 소녀 민지와 함께 학교에 가면서 겪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이다.

감각적인 연출의 박정렬 예술감독 등 탄탄한 창작진과 12명의 경남도립극단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노래·움직임 등이 멋진 힘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극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연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인 요즘,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웃음과 감동을 담은 연극 <너의 곁에 있을게>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당진시, 심훈문학상 수상 당진시민 첫 시집 '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

충남 당진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틈틈이 시를 쓰는 이시유(36) 시인의 첫 시집 '죽은 새를 먹다'(달아실)가 정부 주관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17일 당진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이 시인의 시집이 최근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1차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돼 출판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출판된 시집은 다음 달부터 전국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낸 뒤 2012년 당진으로 이사한 이 시인은 2014년 심훈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되며 등단했고, 이외수 작가 상주 문학생 출신인 그는 현재 당진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시를 쓰고 있

다. 심훈문학상은 당진시가 지역에서 농촌 계몽소설 '삼룡수'를 집필한 심훈(1901~1936년)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제정한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110쪽 분량의 이 시집은 '내 취미는 이시유' 관람하기, 극악무도 발달태생, 즐거운 광기를 사랑하는 사람 오세요' 등 55편이 수록돼 있으며, 기존의 틀과 다른 감각의 독특함과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인은 "당진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됐다"며 "우수도서 선정을 더 같고 닦으며 나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사람의 영혼과 맞닿은 시를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움직임이 소리가 된다! JAZZ에 빠진 영화 OST 그리고 탭댄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 'JAZZ에 빠진 영화 OST 그리고 탭댄스'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 움직임이 춤이 아닌 소리로 표현하는 '그라운드 잼'은 탭댄스의 대중화를 위하여 피아노, 베이스, 퍼커션, 보컬이 어우러진 라이브 연주에 탭댄스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자 하였으며, 탭댄스 리듬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박수로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스윙재즈의 대표적인 곡 'Sing Sing Sing(싱싱싱)'을 비롯한 다양한 리듬의 영화음악과 함께 다이나믹한 탭댄스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으며, 엔딩곡 '아리랑'에서는 재즈로 재해석된 국악 탭댄스로 움직임의 하모니가 절정을 이루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승일/기자



성남시 '제8회 독서토론대회' 참가 초·중학생 96개 팀 모집

성남시는 '제8회 독서토론대회(9.11)'에 참가할 초·중학생 288명, 96개 팀을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성남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중학교 1~3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3명이 1개 팀을 이뤄 초등부 48팀(144명), 중등부 48팀(144명)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초등부 토론 도서는 '새집의 첫 번째 거미(양지운 저)', 논제는 '일제 강점기 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이다.

중등부 토론 도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좀 아는 10대(장성익 저)', 논제는 '재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이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주거와 도시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도서와 논제를 선정했다.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서와 서약서, 학교장 추천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기한 내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Zoom) 인터뷰 심사와 본선을 통과하는 4개 팀(초·중 각 2개 팀)이 오는 9월 11일 오후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성남시 독서토론대회 결승을 치른다.

시는 모두 8개 팀(초·중 각 4개 팀)에 으뜸·버금·솜씨·어울림 상을 준다.

성남시는 독서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토론문화를 확산하려고 2013년부터 이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 올해는 온라인으로 단계별 일정을 추진하는 대회를 열게 됐다.

최근수/기자



횡성군,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

횡성군은 지적공부 측량기준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준 측지계를 말한다. 좌표계 원점으로 지구 중심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별 지역적 오차가 없다.

반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지역측지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가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군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2016년부터 지적기준점 4,431점의 좌표를 재 관측했으며, 면적 및 위치검증을 통해 지



적·임야도 19만 4000여 필지를 변환했다. 또한 경계좌표등급부 시행지역 내 필지 8천여 필지도 올 연말까지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4·1 횡성군민만세 운동 102주년 즈음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해 더욱 의미가 깊다. 정확한 세

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다른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고양시니어클럽-일산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점검 실시

고양시니어클럽은 지난 6월 15일 일산동부경찰서와 함께 일산동부경찰서 상업지구 보안탑과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및 불법촬영 신고가 다수 접수된 지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근로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9년 일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예방 활동,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하철 역사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은빛순찰대를 지난 2019년 발족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은빛순찰대는 지하철과 공공화장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고양시니어클럽 은빛순찰대 권갑순 참여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에 함께하게 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고양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함양군,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자제 당부

함양군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우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강북구,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받으세요"

서울 강북구가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안전 점검은 건축구조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신청 건축물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물 기울기, 외부균열, 변형 등 안전 취약요인을 확인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물 소유주에게는 보수공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권한다. 신청대상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상인 노후 민간건축물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지은 지 50년이 지난 민간건축물은 별도 신청 없이 구에서 직권으로 검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건축안

전>안전점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시설 안전관리에 자칫 소홀하기 쉽다”라며 “건축소유주들은 이번 점검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미리 제거해 사고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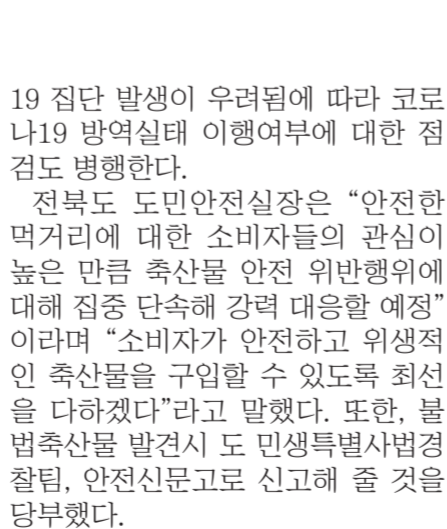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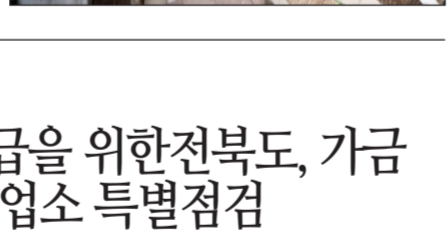


여름철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한전북도, 가금 도축장 및 가공업소 특별점검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축장 및 가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더운 날씨로 인해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높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닭·오리 도내 도축장 및 가공업소 59곳으로 축산물 생산, 가공, 보관 등 전 과정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 식육 및 가공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상하차시 고온 노출 방지 및 냉장·냉동 온도관리 여부, ▲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은 밀폐된 작업공간, 외국인 근로자 합숙,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등으로 인한 코로나

19 집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실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축산물 발견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한영기기자

서울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불법영업한 '무면허택시' 첫 적발

2명은 자차처럼 불법 운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1명은 경찰고발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해왔다. 이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1,620건의 무면허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무면허 영업차량에 승차한 승객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의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한명(A씨)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

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 무허가 유상운송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됐다.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사업면허 취소차량 불법유상운송 2건,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 1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택시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



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 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과적단속반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대형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용덕 시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홍보와 선제적 단속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카메라 확충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4월부터 구산면 등 9개 면·동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9대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합포구는 2019년 이동식 카메라 1대를 시범 구입한 후 작년에 5대를 설치했고 올해 추가구입하여 전 면·동에 보급 완료함으로써 기존 고정식 카메라(41대)와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이동식 카메라는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설치 장소의 이동이 용이하여 지역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별도의 가설 공사가

필요 없어 경제적이며,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충전해 전력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방송, 경고문자, 경고조명(야간)으로 계도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카메라 추가 설치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라며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민기자



남해군-남해소방서, 백신접종센터 안전점검 실시

남해군은 17일 남해읍 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및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남해군 및 남해소방서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의 전반적인 안전상태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설비,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소방시설 점검도 실시하였다.

남해군 김미선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이 필수”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 군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3차에 걸쳐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으며, 지난 3~5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 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영화 '범죄도시2', 6월15일 전격크랭크업!

범죄액션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범죄도시'의 후속작 영화 '범죄도시2'가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월 15일 크랭크업했다.

역대 청봉 영화 흥행 TOP3이자, 역주행 흥행의 레전드로 꼽히는 영화 '범죄도시'가 '범죄도시2'로 돌아온다. '범죄도시'팀은 더욱 흥미로운 스토리, 강렬한 스케일로 무장한 '범죄도시2'의 대장정을 마쳤다.

영화 '범죄도시2'는 청봉 액션 영화의 레전드 '범죄도시'의 속편으로 괴물형사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의 더욱 짜릿해진 범죄소탕 작전을 담은 범죄 액션 영화이다.

전편 '범죄도시'에서 최강 팀워크를 보여줬던 마동석을 비롯 최귀화, 박지환, 허동원, 하준은 물론이고 새로 합류한 손석구 등 매력 넘치는 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범죄도시2' 촬영과 비슷한 시기에 마블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 '이터널스' 촬영까지 함께 진행했던 마동석의 할리우드와 총무로 오가는 행보는 국내외 관객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먹 한 방으로 거침없이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괴물형사 마석도 캐릭터를 탄생시킨 마동석은 "그 어느때 보다 보람찬 여정이었다."

전 스태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촬영에 임했

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게 촬영한 만큼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영화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크랭크업 소감을 전했다. '범죄도시'의 무자비한 악당 장건의 윤계상을 뛰어넘을 글로벌 빌런 '강해상' 역의 손석구는 "새로이 합류한 캐릭터로 '범죄도시'의 팀워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

몸을 던져 연기한 만큼 재미있는 액션 영화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범죄도시2'에 몰입했던 시간을 회고했다.

'범죄도시' 조연출을 맡았고, '범죄도시2'로 데뷔하는 이상용 감독은 "코로나19로 1년 넘게 늘어난 촬영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촬영에 임해준 전체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무한한 감사드린다. 재미있는 영화로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전후후무 액션 프랜차이즈 '범죄도시2'는 전편의 가리봉 소탕작전 4년 뒤를 배경으로 더욱 화끈하고 살벌해진 금천서 강력반이 압도적 스케일의 범죄소탕작전을 펼칠 것을 예고해 전편과는 색다른 재미로 찾아올 것을 기대케 한다.

전편을 잇는 역대급 범죄 액션 영화의 탄생을 알리는 영화 '범죄도시2'는 후반 작업에 돌입한다.

전순희/기자



솔비 그림 2010만 원 낙찰

가수 솔비(권지안)가 온라인 경매에 낸 그림이 2010만 원에 낙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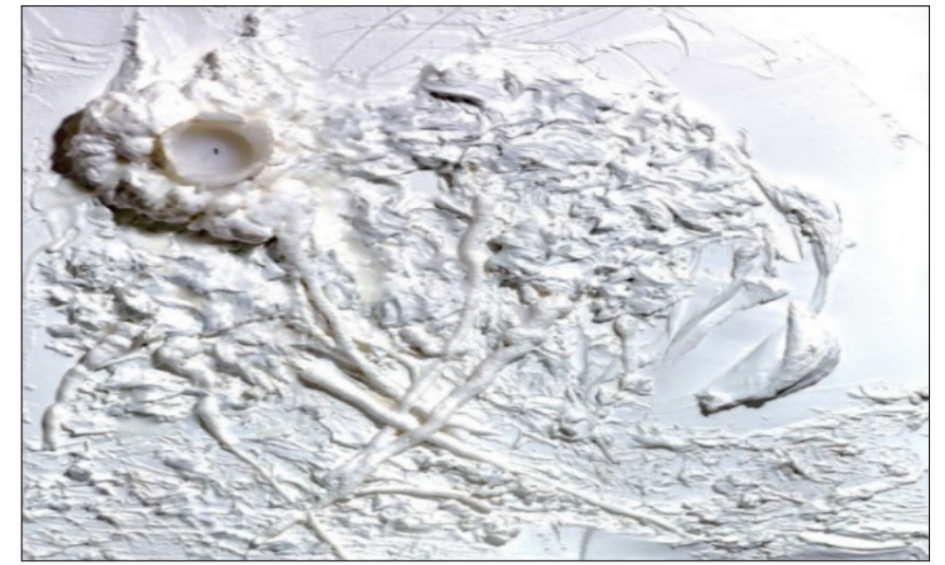
17일 소속사 엠에이피크루에 따르면, 솔비의 '플라워 프롬 헤븐' (Flower from Heaven)'은 지난 16일 서울옥션 경매에서 71회 경합 끝에 2010만 원에 낙찰됐다.

추정이 400만 원을 5배 뛰어넘는 금액으로, 해당 경매 최고가를 기록

했다. '플라워 프롬 헤븐'은 지난 12월부터 선보여온 케이크 시리즈의 연작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에 케이크 크림의 질감을 연출한 부조 작품이다.

순백색 꽃으로 천국을 표현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의 매개체로 초를 사용했다.

최재은/기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송지효X남지현X채종협, '가오픈' 포스터 공개!

'마녀식당'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진다!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연출 소재현, 이수현 / 극본 이영숙)가 시청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오픈 포스터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7월 16일 첫 공개될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대가가 담긴 소원을 파는 마녀식당에서 마녀 히라(송지효 분)와 동업자 진(남지현 분), 알바 길용(채종협 분)이 사연 가득한 손님들과 만나는 여정을 담은 소울 풍전 잔혹 판타지를 그린다.

앞서 마녀 히라, 동업자 진, 알바생 길용의 각기 다른 성격이 엮보이는 캐릭터 포스터를 통해 흥미를 잔뜩 자극한 터.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가오픈 포스터를 공개, 또한 번 신비로운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마녀 히라는 속내를 읽을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가게 창 밖을 바라보며 소원과 대가를 맞바꿀 손님을 찾는 듯하다. 이어 요리를 먹고 어쩔 수 없이 동업자가 된 진은 그런 히라를 잡자코 응시, 같이 일하게 됐지만 좀처럼 그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진심이 읽히고 있다.

그러나 하면 건설해 보이는 알바생 종협은 순수한 매력에 돋보이는 밝은 미소로 '마녀식당'의 분위기를 환하게

전환 시킨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요, 소원을 들어줄게"라는 멘트가 '마녀식당'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방점을 찍어주고 있다. 무엇을 파는지, 왜 소원을 들어주는지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녀식당'이 주는 매혹적인 아우라와 여유로워 눈 앞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할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고 있는 것.

이에 한 식당에서 동고동락 하게 된 세 남녀지만 서로 다른 이상을 품고 있는 것이 여실히 와닿아 더 구미를 당긴다. '마녀식당'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는 손님들과 더불어 이들의 얽히고설킨 관계성이 어떻게 펼쳐질지 드라마를 한층 더 고대케 한다.

이처럼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없는 식당, 황홀한 요리를 내오지만 반드시 소원과 대가를 교환하는 '마녀식당'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히라, 진, 길용이 어떻게 꾸러나갈지 상상력을 피어 오르게 만든다.

여기에 세상에 딱 한 곳만 존재할 법한 '마녀식당'만의 독특한 비주얼이 배일을 벗어수룩 기대감을 함께 치솟게 하고 있다.

한편, 올 여름 시청자들을 환상적인 마법에 홀리게 할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7월 16일 전격 공개된다.

현우주/기자



'티키타카' 유진 "BTS 세계적 신드롬, 충격적이었다"

SBS 예능 '티키타카' 유진이 BTS 신드롬에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

6월 20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티키타카'(이하 '티키타카')에는 유진이 탑승, 솔직한 입담과 원조 요정다운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추억을 안길 예정이다.

이날 유진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신드롬에 대해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유진은 1세대 아이돌인 S.E.S 출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한 S.E.S는 국내는 물론 일본 진출에도 성공해 한류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런 유진이 BTS 신드롬에 대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놓은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이어 유진은 "BTS가 정말 부럽고 자랑스럽다. 1세대 아이돌로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솔직한 반응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진은 최근 화제를 모은 BTS 햄버거에 대해서도 언급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진은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깜빡 라이브 무대를 공개한다. 녹슬지 않은 1세대 아이돌의 실력에 MC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유진의 S.E.S 히트곡 메들리 무대까지 공개될 예정이라 본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한다.

'티키타카'는 달리는 차 안에서 펼쳐지는 신개념 드라이브 뮤직 토크쇼. 매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품질 라이브와 토크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조 요정 유진의 남다른 BTS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티키타카'는 6월 20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결사곡2' OST 인기 배턴 유소나-유제이 있다.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극본 피비(임성현) 연출 유정준) OST 인기 배턴을 가수 유소나, 유제이가 이어간다.

두 사람이 부른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의 OST 'Don't Turn Away', '사랑해선 안되는 걸 알면서도'가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연이어 발매된다.

먼저 오는 19일에는 감성적인 피아노 연주와 화려한 스트링을 특징으로 한 발라드 곡 '사랑해선 안되는 걸 알면서도'가 공개된다. 독보적 음색의 소유자 유제이가 부른 이 곡은 히트 작곡가 빨간양말(임동균, 어한중)이 작사, 작곡했으며 한 번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강한 중독성을 특징으로 한다.

20일 공개되는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의 네 번째 OST 'Don't Turn Away'는 유튜브 방송에서 6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소나가 가창에 나서 발매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의 차별하면서도 슬픔이 묻어 있는 음색으로 노래를 소화하며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발매된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의 OST 역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드라마의 인기 견인에 한 몫하고 있다.

실력과 보컬리스트가 총출동한 초화화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결

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의 OST는 '미스트롯2' 선(善) 홍지윤, 레전드 가수 박상민이 부른 OST가 공개됐으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현, 엠넷 '슈퍼스타K' 출신이자 감각적 보컬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손예림,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의 주연 배우 성훈 등이 참여한 OST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명품 발라드 박상민이 부른 두 번째 OST '그때 알았더라면'이 지난 11일 발매된 후 음원사이트 카카오톡 주간 차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며 명품 OST를 입증했다.

'그때 알았더라면'은 '인생이라는 노래는 수많은 변주를 통해 완성된다'는 화두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곡으로,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곡이다.

한편, TV조선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는 잘나가는 30대, 40대, 50대 매력적인 세 명의 여주인공에게 닥친 상상도 못했던 불행에 관한 이야기, 진실한 사랑을 찾는 부부들의 불협화음을 다룬 드라마로 '보고 또 보고', '하늘이시여', '인어 아가씨' 등을 집필한 피비(Phoebe, 임성현) 작가의 6년만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2'는 매주 두,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